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8.(목) 17:3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장재동 방재팀장 임재성
		전화번호	051-718-0200 051-718-0328

부산, 울산, 지리산 부근 많은 비

- 부산, 울산, 지리산 부근 30~80mm 많은 비
- 3월 1일 오후~밤에 많은 비 집중(돌풍 동반 주의)



[3월 1일 밤,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]

- 부산지방기상청장(청장 신도식)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경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, 이후 3월 1~2일(월~화) 부울경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. 이 기간 동안 부산과 울산,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(최대 80mm 이상)가 예상된다며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이 1일 오후에 서해상, 저녁~밤에 중부지방을 지나 2일 새벽 동쪽지방을 경유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1일 오전부터 저기압의 오른쪽에서 발달한 따뜻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부울경에 비가 내리겠고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오후~밤에 부산과 울산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비의 양이 많은 반면,
 - 2일 새벽에 저기압이 동쪽지방으로 이동하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점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, 울산과 경남내륙 일부지역(창녕, 밀양, 양산, 거창, 합천)에는 내리던 비는 눈 또는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높은 산지나 지표면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,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당부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현재(28일 17시 현재) 경남서부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으나 오늘(28일) 밤에 소강상태에 들겠고, 내일(3월 1일) 오전(09시) 부터 다시 경남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(15~18시)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어, 모레(3월 2일) 아침(09시)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3월 1일 오전(09시)~2일 아침(09시)) >

- 부산, 울산: 30~80mm
- 경상남도: 20~60mm(많은 곳 지리산 부근 80mm 이상)

[강풍/풍랑 전망]

- (강풍) 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는 2일 새벽~오후, 부산, 울산을 중심으로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, 최대순간 풍속 시속 75km(초속 20m)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며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하는 한편,
- (풍랑) 1일 오후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의 물결이 높아져 3일까지 최대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.
- 특히 부산, 울산, 거제 동쪽 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,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.